

장자의 심정으로

작성일 : 2009. 12. 04. (금) 새벽 02:45 ~ 02:55

작성자 : 김효정

이 섭리 역사에서 장자의 심정으로
나를 따라 이 길을 갈 자가 누구이나.

내 마음을 심정으로 느껴 나의 뜻을 행함으로
많은 생명을 옳은 대로 이끌 참된 지도자가 진실로 요구
된다.

극복해야 할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도
나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내 십자가 받들고
끝까지 나와 함께 갈 사랑하는 이들.
이 인류를 전부 돌아보아도 섭리사 하늘 애인들 밖에는
내 심정 아는 자 없도다.
이곳은 내가 사랑하는 애인으로 기른 곳이다.
그래서 나는 섭리사에 기대 할 수 밖에 없다.
마치 애걸하는 듯 한 말도 하는 내 마음을 알겠느냐.

너는 나에게 그토록이나 소중한 존재이다.
내 몸이 되어 나를 나타내고
나와 함께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.
한명 한명을 향한 내 완전하고 유일한 사랑의 심정을
이해할 수 있어야 사랑에 자유함을 얻는다.

나는 진실만을 말한다.
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는
흔들림 없이 역사길 갈 수 있을 것이다.
나와 같이 네 사랑도 완전하여라.